

# 방대한 분량의 '괴테전집' 선보여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 방랑시대》 국내 최초로 완역

대문호 괴테(1749~1832)의 대표작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와 《방랑시대》(예하)가 국내 최초로 완역돼 나왔다. '괴테학회'(회장 최두환)의 뜻있는 이들이 모여 발족한 《괴테전집》 간행위원회(위원장 지명렬)는 지난 92년 같은 출판사(당시 현대소설사)와 전28권의 괴테전집을 펴낼 것을 계약. 그 첫 작업으로 《프랑스 중군기》와 《로마 체류기》를 출간한 바 있다. 그 후 여러 사정으로 주춤했던 작업이 3년만에 다시 활기를 띠며 이 두 권의 책으로 열매를 맺었다.

## 가장 권위있는 함부르크판을 번역 텍스트로

《괴테전집》 간행위원회가 번역 텍스트로 삼은 것은 독일 함부르크판 《괴테전집》. 주해가 상세하고 정확해 가장 권위있는 판본으로 알려져 있다. 《수업시대》를 번역한 박환덕 교수(서울대)는 "다방면에 걸친 괴테의 넓은 식견을 국내 독자들이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 부족하다 싶은 해설은 다른 판본에서도 참고해 각주를 보충했다"며, 원고매수 4800여매에 이르는 분량을 번역함에 있어 '신중을 기했음'을 밝힌다. 예하출판사 편집부의 염현숙씨는 두 권의 책 모두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원고를 일일이 대조하고 행갈이 하나도 허투루 하지 않았다"며, "사전에도 나와 있지 않은 옛말들의 의미를 살리려 노력했다"고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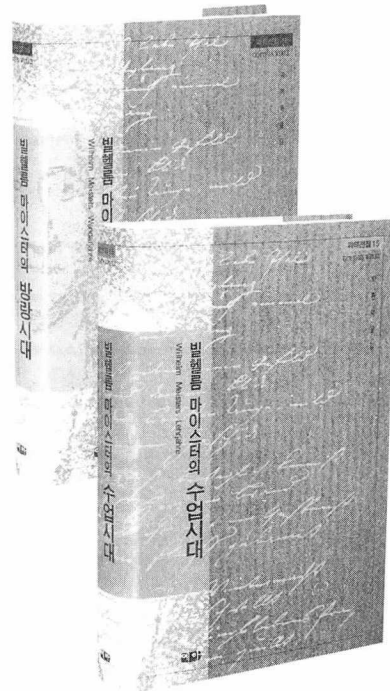
괴테 자신의 연극적 체험을 토대로 창작한 《수업시대》의 전신은 《빌헬름 마이스터의 연극적 사명》이다. 연극소설에 가까웠던 이 작품은 1795년, 지금의 모습인 《수업시대》

'괴테학회'의 뜻있는 이들이 발족한 《괴테전집》 간행위원회에서 괴테의 대표작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 방랑시대》를 완역해 두권의 책으로 열매맺었다. 평이한 줄거리 속에 폭넓은 사회문화적 식견을 담은 이 작품의 발간을 계기로 《파우스트》《시와 진실》 등 번역출간이 활기를 띠고 있다. 한편 민음사에서도 괴테전집 발간사업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있다.

로 개작 발표되면서 본격적인 교양소설의 모습을 띤다. 연극 속에서 자기 자신에게로 이르는 큰길을 찾겠다는 희망으로 시민사회를 탈출한 주인공 빌헬름은 배우들의 세계로 뛰어들어 여러 여인과 사랑을 나눈다. 정신적 성숙과 함께 실망과 환멸을 안겨주기도 한 다양한 체험들을 거친 후 빌헬름은 '탑의 결사'에 가입하며, 거기서 만난 여인 나탈리와 결혼하기에 이른다.

박환덕 교수는 해설에서 "그 평이한 줄거리 속에 당시의 사회사적, 문화사적 상황이 담겨져 있으며, 예술, 경제, 사회, 교육, 가족, 종교, 정치 등의 문제들이 개인의 교양의 문제로 형상화돼 있다"고 쓰고 있다.

한편 《수업시대》의 속편 《방랑시대》는 괴테가 80세 되던 1829년에 발표한 작품이



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쌓인 연륜을 바탕으로 씌어진 이 소설은 《수업시대》와는 다른 면모를 보인다. 주인공 빌헬름은 《수업시대》에서 첫사랑의 여인이었던 마리아네가 낳은 아들 펠릭스와 함께 방랑하는데, '탑의 결사'의 서약에 따라 한 곳에 3일 이상 머무를 수 없다. "모든 일상적인 욕망으로부터 벗어난 체념자로서의 삶이 요구되는" 것이다.

## 전통 소설문법 벗어난 '유언' 《방랑시대》

이 소설에서 빌헬름의 '정신적 성숙의 과정'은 더이상 중요시되지 않는다. 대신 인구

과잉인 산악지대의 가난을 타개하기 위해 주민들을 아메리카로 이주시키려 노력하는 '체념자들'의 행위를 통해 '인간과 사회의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전통적인 소설기법을 벗어난, 다소 읽히기 어려운 이 작품을 두고 역자 광복록 교수는 《괴테전집》 편집자인 에른스트 보이틀러의 "이것은 일반적 의미의 문학이 아니다. 유언이며, 하나의 메시지다"라는 말을 인용하고 있다.

예하출판사는 이들에 이어 《파우스트》(광복록 옮김)와 《시와 진실》(박광자 옮김) 출간을 준비중이다. 여타 번역본과의 변별을 위해 《파우스트》의 경우 초고와 완성작을 함께 묶어 펴낼 예정이다.

한편 민음사에서도 고대 독문과의 박찬기 명예교수가 94년 3월 정년퇴임 때 받은 퇴직금 1억원을 원고료로 출연 한데 힘입어 괴테전집 발간사업에 착수했다. 현재 민음사쪽의 괴테전집 작업에 참가하고 있는 이들은 정서용, 김주연, 안삼환, 전영애, 김숙희 교수 등이다.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 편력시대》 《시선집》 《시와 진실》 《파우스트 1, 2부》 등 1차분 10권 번역이 올 가을 중에 마무리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쯤에는 편집을 마치고 책으로 선보일 전망이다.

—한 강 기자

이동부출판상  
1994

문화대상  
1995

동아출판사  
TEL: 861-4818/853-5608

## 영역별 연령별

# 어디든 리스리스로 아이를 영재로 키우세요!

### 유아교육동화

알콩달콩 유아교육동화는 이렇게 꾸며졌습니다.

- 1 MBC 유아프로그램 '뽀뽀뽀'의 작가 조문현 선생님이 집필
- 2 국내 최고 일러스트레이터 20명의 생생한 그림
- 3 전체 60권을 3~4세용 30권, 5~6세용 30권으로 단계별 구분
- 4 각 단계를 인지, 사회성, 정서, 탐구력, 언어발달의 다섯영역으로 세분화
- 5 각권마다 유아를 지도하는 데 필요한 지침서 '함께 보는 어른에게' 수록

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

유아 그림책의 차별화 선언!

전 60권 ● 3~4세용: 30권(값120,000원) ● 5~6세용: 30권(값120,000원) ● 날권 판매 가능, 각권 4,000원